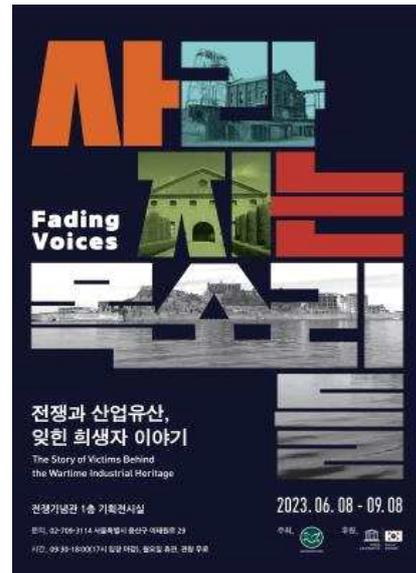


‘사라지는 목소리들’ - 전쟁과 산업유산, 잊힌 희생자 이야기

Fading Voices The Story of Victims Behind the Wartime Industrial Heritage

1. 전시개요

- 기간: 2023.6.8.~9.8
- 장소: 전쟁기념관 1층 기획전시실
- 주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후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관람료: 무료
- 휴관일: 매주 월요일
- 관람시간: 9:30~18:00(입장마감 17시)



2. 전시구성

- 1부 일본 산업유산의 현장과 사라지는 목소리들
- 2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기억의 계승
- 3부 또 하나의 현장, 사도광산

3. 전시주제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속 야하타제철소, 나가사키조선소, 다카시마탄광, 하시마탄광, 미이케탄광에 강제동원되어 혹독한 노동을 견뎌야 했던 피해자의 증언을 메인 자료로 구성하였다. 전쟁과 산업유산, 잊힌 피해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세계유산 속 전쟁의 기억과 고통에 공감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짚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4. [증언영상] 5편의 피해자의 목소리들

<p>1 '가라면 가는 거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갔어 김규수 ·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최장섭 · 안가면 가족들이 굶어 주석봉 · 완전히 납치야 납치 손용암 · 나무 운반하러 가는 줄 알고 갔어 김한수 · 느닷없이 빵을 때려버려 이천구 ·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몰라 손중구 	<p>10분 41초</p> <p>본인의 의사에 반해 일제의 압력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억지로 갈 수밖에 없었던 동원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피해자 손용암은 강제동원 방식에 대해 “완전히 납치야 납치”라고 증언했다.</p>
<p>2 '갈혀서 일하는 신세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훈련에 정신수련만 시켜 김성수 · 징역살이랑 똑같아 이정옥 · 바닷 속에서 탄을 캐니 굉장히 더워요 정복수 · 땀으로 목욕을 했어 최장섭 · 기침을 하면 새까만 탄가루가 나왔어요 손용암 · 콩깍묵 먹다가 이질병에 걸려요 손중구 · 월급이라고 돈을 준 일이 없어 김규수 · 아파도 쉴 수가 없었어 서정우 	<p>11분 22초</p> <p>외부와 단절되어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하며 갈혀 지내야 했던 경험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증언한다. 피해자 이정옥은 “징역살이랑 똑같아”라고 말하며 외부와 철저히 단절되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p>
<p>3 '죽지 않아도 될 죽음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 번인가 죽을 뻔 했지 류기동 · 매일 죽을 생각만 했어 서정우 · 공습에 사람이 감자 찌듯이 찌버렸어 주석봉 · 원자폭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 배한섭 · 해방 소식에 눈물이 쏟아졌어 최장섭 · 시체 치우며 뱃살을 벌었지 이천구 · 여기까지 와서 죽을 수는 없잖아 김규수 	<p>11분 32초</p> <p>강제노동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와 전쟁 공습으로 인한 피해, 각종 질병들에 대해 토로한다. 피해자 류기동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위험천만한 사고로 인해 큰 부상을 겪고 평생 후유증으로 고통받은 기억을 담담히 털어놓았다.</p>
<p>4 '같은 현장, 다른 피해자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다고 말하면 밥을 적게 줬어 리즈창 · 소등시간에 안 자면 발로 찼어 리칭원 · 죽음의 고비를 넘긴 연합군 포로의 고백 레스터 테니 	<p>16분 52초</p> <p>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강제동원의 피해가 한국인만의 피해가 아닌 중국인 포로·연합군 포로도 겪은 피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연합군 포로였던 레스터 테니는 죽음의 고비 속에서 오직 생존만을 위해 버텼던 고통스러운 기억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p>
<p>5 또 하나의 현장, 사도광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사도가시마'로 보냈어 박인혁 · 섬이라고 꼭 가둬놓고 김주형 · 폐에 돌가루가 꽉 차갔고 김광선 · 다 죽은 사람이 나온 거지 김복년 · 어떻게든 근거를 찾아서... 정운진 	<p>9분 6초</p> <p>이번 전시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의 실상을 밝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도광산에도 한국인을 강제동원했던 사실을 다수의 피해자와 유족들의 증언을 통해 전하고 있다. 이 전시를 통해 원하는 역사만을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닌 전체 역사를 함께 알려야 한다는 것을 관람객들과 공유하고자 한다.</p>

5. 관람안내

- 전시해설 예약: 10명 이상, 방문 1주일 전까지 예약
- 해설예약: https://www.instagram.com/fading_voice
- 이용가능 시설: 빔 프로젝터 사용 가능한 강의 공간(25명 내외)

